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의 도서출판 활성화를 통한 수익모델 연구

오승룡(한국스포츠콘텐츠개발원 사무총장) · 김육기*(용인대학교 강사)

요 약

본 연구는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의 도서출판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태권도 도서의 실질적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태권도 지도자와 대학의 태권도 전공생들이 지각하는 태권도 교육과정 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에서 재정의 책임성 제고와 재정자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의 수익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먼저 태권도 도서의 필요성 분석 결과, 태권도기술이 태권도과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권도기술영역은 품새, 시범, 겨루기, 격파, 기본영역 순으로 태권도과학영역의 경우 태권도경영학, 태권도심리학, 태권도교육학, 태권도역사, 태권도역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사회학, 태권도정신·철학 순으로 나타났다. 태권도 도서의 필요성 교차분석 결과, 태권도기술영역은 모든 영역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태권도과학영역의 경우 태권도 교육학, 태권도 경영학만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 차이 분석 결과, 기본영역에서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와 학생이 지도자보다 겨루기영역은 학생이 지도자보다 높게 차이 나타났으며, 품새영역의 경우 학생, 지도자,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에 따른 필요성 차이 분석 결과, 태권도역사와 태권도사회학에서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와 학생이 지도자 보다 태권도교육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역학은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가 지도자와 학생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 차이 분석 결과, 기본영역과 겨루기영역은 4단이 5단 이상보다 품새영역은 1단~3단과 4단이 5단 이상보다 시범과 격파영역에서는 4단과 5단 이상이 1단~3

* rusia1997@gmail.com

이 연구는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의 '2017년 연구자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단보다 더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 차이 분석 결과, 태권도역사는 4단이 5단 이상보다 태권도 역사를 제외한 태권도정신·철학, 태권도사회학, 태권도심리학, 태권도교육학, 태권도경영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역학 모든 영역에서 4단과 5단 이상이 1단~3단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어: 태권도 도서, 출판, 활성화, 태권도교육과정, 태권도기술, 태권도과학

I. 서론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은 태권도의 세계화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한국 고유문화 소산인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 등을 계승·발전시키고 태권도 문화 창달의 도모와 함께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세계적인 태권도의 전파와 보급을 통해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 사업을 통해 과업을 점차 이룩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태권도의 기술과 연구개발, 태권도 승품·단 심사, 교육사업, 태권도 지도자 교육과 연수, 지도자 파견,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파견, 국제교류 사업, 태권도인 복지향상 사업 등이 있다(국기원, 2017).

우리나라의 협회와 연맹 등의 단체들은 재정적으로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김남수, 정병기, 1996)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의 경우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은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에서 자체수입의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 경제분야를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행정자치부, 2016) 이라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 책임성 제고와 재정자립이 가능할 것이다(홍성익, 김유찬, 2016).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법에 의거한 특수법인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이경명, 2011), 여기에서 특수법인이란 국가정책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법을 기초로 설립된 법인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특수법인의 경우 재정경제와 경영관리 및 운용상의 이유 등에

따라 특정한 공익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법인을 의미한다(두산백과, 2019). 이렇듯 국기원은 특수법인으로써 태권도 진흥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태권도 진흥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특히나 국기원은 태권도 지도자 양성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 태권도 지도자와 대학교의 태권도 전공생들을 위한 전공 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기원은 정관에 따라 다양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으나, 조직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조직과 연관된 회원이나 산하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익이 필연적인데, 지금까지는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익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국기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회원이나 산하단체, 관련 단체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는 국기원 정관에서 명시된 가장 첫 번째 목적 사업인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로 가장 먼저 적시된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에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내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출판 활성화를 통한 수익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현실 불가능한 아이디어성 수익모델 보다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기원에서 발간한 태권도용어사전의 경우 다양한 태권도 교육현장에서 각기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태권도 용어들을 전 세계의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들의 태권도 용어를 올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 편찬한 바 있으며(박정호, 2019) 이는 태권도와 관련된 서적을 국기원에서 도서를 출판하는 것에 대한 연관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도서 출판은 독자의 존재가 있어야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출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장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즉, 독자들이 어떤 도서를 구입하여 읽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이시우, 2019). 이러한 출판산업은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서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이라는 경제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8)에 따르면 전체 세부출판 분야 1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학(17.5%)과 인문학(16.1%) 분야, 다음으로 전문서(8.2%), 학술서(6.8%), 예술/대중문

화(6.2%), 대학교재(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서, 학술서, 대학교재에 포함되는 도서에 대한 태권도 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구매의 잠재 소비자라 할 수 있는 대학 태권도 전공생, 교강사와 연구자 및 태권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박정호 연구자의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연구가 진행되어진 태권도 교육과정 기준 개발(2017)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국기원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태권도 교본과 태권도 용어사전이 있으며 태권도 교본의 경우 1987년 발간된 이후 2005년에 1회 증보판을 발간되었다. 또한 태권도 용어사전의 경우 태권도 용어집이라는 명칭으로 2008년에 출판되었으며 2010년과 2018년 2번에 걸쳐 증보된 바 있으나 태권도용어사전의 경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기원 태권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일선 지도자, 연구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출판사업을 시도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다시 현장에서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의 도서출판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태권도 도서의 실질적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태권도 지도자와 대학의 태권도 전공생들이 지각하는 태권도 교육과정 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에서 재정의 책임성 제고와 재정자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의 수익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판단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태권도 도서의 잠재적 또는 실질적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태권도 전공자와 교·강사, 교재개발 및 태권도 관련 대상자들로 선정하였으며, 조사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성	364	65.0
	여성	196	35.0
연령	20대	368	65.7
	30대	74	13.2
	40대 이상	118	21.1
전공	체육학 및 기타	65	11.6
	태권도학	495	88.4
직업	지도자	168	30.0
	교·강사 / 연구자 / 기관종사자	56	10.0
	학생	336	60.0
수련정도	1년 ~ 2년 미만	17	3.0
	3년 ~ 4년 미만	15	2.7
	4년 ~ 5년 미만	32	5.7
	6년 이상	496	88.6
단정도	1단 ~ 3단	83	14.8
	4단	262	46.8
	5단 이상	215	38.4
연간 구매빈도	0회	246	43.9
	1회	199	35.5
	2회	40	7.1
	3회 이상	75	13.4
구매경로	서점	67	12.0
	학교	111	19.8
	태권도장	45	8.0
	인터넷문고	244	43.6
	기타	93	16.6
구매목적	수업	205	36.6
	기술수련	103	18.4
	태권도에 대한 관심	161	28.8
	기타	91	16.3
합계		560	100.0

기간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온라인(on-line)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총 56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결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364명(65.0%), 연령에서는 20대가 368명(65.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공에서는 태권도학이 495명(8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에서는 학생 336명(60.0%), 지도자 168명(30.0%),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수련정도에서는 6년 이상이 496명(88.6%)로 가장 많았으며, 단 정도에서는 5단 이상이 215명(38.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태권도관련 도서의 연간 구매 빈도는 0회와(43.9%) 1회(35.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도서의 구매경로는 인터넷문고가 244명(43.6%)로 가장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구매목적에서는 수업이 205명(36.6%), 태권도에 대한 관심 161명(28.8%), 기술관련 103명(18.4%), 기타 91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1) 설문지 구성

국기원 연구소 도서출판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의 기초연구를 위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태권도 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박정호(2017)의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 연구 중 내용 체계를 토대로 학계 및 교재개발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태권도 및 스포츠경영 전공교수 2인과 교재개발 관련 전문가 2명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여 태권도기술 5문항과 태권도과학 8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9문항을 포함한 총 22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구성 지표	설문지 구성내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연령, 전공, 직업, 수련정도, 단정도, 연 구매빈도, 구매경로, 구매목적		9
도서 필요성	태권도기술	기본, 품새, 겨루기, 격파, 시범	5
	태권도과학	태권도역사, 태권도정신·철학, 태권도사회학, 태권도심리학, 태권도교육학, 태권도경영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역학	8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방법으로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6 프로그램과 SPSS 18.0 version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일원변량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Fisher의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 사후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태권도기술 도서 필요성 의견

태권도기술 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분석결과, 태권도기술 영역 중 품새영역(3.863), 시범영역(3.859), 겨루기영역(3.855), 격파영역(3.852), 기본영역(3.680)순으로 나타났고 태권도기술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3.822로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과학영역의 경우 태권도경영학(3.618), 태권도심리학(3.579), 태권도교육학(3.532), 태권도역사(3.518), 태권도역학(3.479), 태권도생리학(3.427), 태권도사회학(3.338), 태권도정신·철학(3.264)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권도과학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3.469로 나타났다.

표 3.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 의견

구분		필요성	SD	순위
태권도기술 (3,822)	기본영역	3,680	1,027	5
	겨루기영역	3,855	1,013	3
	품새영역	3,863	.956	1
	시범영역	3,859	.961	2
	격파영역	3,852	.908	4
태권도과학 (3,469)	태권도역사	3,518	.986	4
	태권도정신·철학	3,264	1,026	8
	태권도사회학	3,338	1,028	7
	태권도심리학	3,579	.980	2
	태권도교육학	3,532	.953	3
	태권도경영학	3,618	.948	1
	태권도생리학	3,427	1,014	6
	태권도역학	3,479	1,046	5

2. 태권도 도서의 필요성 의견 교차분석

1)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표 4〉는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로서, 기본영역(36.1%), 겨루기영역(38.2%), 품새영역(39.6%), 시범영역(42.5%), 격파영역(44.3%) 등 모든 영역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비율의 경우 조금 필요하다(40.1%), 매우 필요하다(26.5%), 보통이다(25.4%), 조금 필요없다(5.1%), 전혀 필요없다(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기술 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조금/매우 필요하다)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조금/전혀 필요없다)의 비율이 8.0%로 나타났다.

표 4.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영역	전혀 필요없다	조금 필요없다	보통이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기본	23명(4.1%)	35명(6.3%)	170명(30.4%)	202명(36.1%)	130명(23.2%)
겨루기	19명(3.4%)	29명(5.2%)	132명(23.6%)	214명(38.2%)	166명(29.6%)
폼새	15명(2.7%)	21명(3.8%)	146명(26.1%)	222명(39.6%)	156명(27.9%)
시범	14명(2.5%)	31명(5.5%)	126명(22.5%)	238명(42.5%)	151명(27.0%)
격파	10명(1.8%)	27명(4.8%)	137명(24.5%)	248명(44.3%)	138명(24.6%)
총 계	81명(2.9%)	143명(5.1%)	711명(25.4%)	1124명(40.1%)	741명(26.5%)

2)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비율의 경우 ‘보통이다(36.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영역 중 태권도역사(38.8%), 태권도정신·철학(38.8%), 태권도사회학(36.6%), 태권도심리학(35.0%), 태권도생리학(41.8%), 태권도역학(37.5%)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태권도 교육학(38.2%)과 태권도경영학(36.8%)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과학 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조금/매우 필요하다)의 비율이 48.6%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조금/전혀 필요없다)의 비율이 14.7%로 나타났다.

표 5.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 의견 교차분석

영역	전혀 필요없다	조금 필요없다	보통이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태권도역사	24명(4.3%)	37명(6.6%)	217명(38.8%)	189명(33.8%)	93명(16.6%)
태권도 정신·철학	29명(5.2%)	87명(15.5%)	217명(38.8%)	161명(28.8%)	66명(11.8%)
태권도 사회학	34명(6.1%)	65명(11.6%)	205명(36.6%)	190명(33.9%)	66명(11.8%)
태권도 심리학	16명(2.9%)	48명(8.6%)	196명(35.0%)	196명(35.0%)	104명(18.6%)
태권도 교육학	16명(2.9%)	52명(9.3%)	194명(34.6%)	214명(38.2%)	84명(15.0%)
태권도 경영학	10명(1.8%)	50명(8.9%)	189명(33.8%)	206명(36.8%)	105명(18.8%)
태권도 생리학	22명(3.9%)	58명(10.4%)	234명(41.8%)	151명(27%)	95명(17%)
태권도 역학	20명(3.6%)	66명(11.8%)	210명(37.5%)	154명(27.5%)	110명(19.6%)
총계	147명(3.8%)	426명(10.9%)	1445명(36.9%)	1272명(32.5%)	630명(16.1%)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1) 직업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 차이

직업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표 6>과 같다. 분석결과, 태권도기술 중 기본영역($p<.001$), 겨루기영역($p<.01$), 품새영역($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LSD의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기본영역에서는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3.875)와 학생(3.827)이 지도자(3.321) 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고, 겨루기영역에서는 학생(3.976)이 지도자(3.607)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품새 영역에서는 학생(4.024), 지도자(3.643), 교·강사/연구자/기관 종사자(3.554) 순으로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표 6. 직업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 차이

영역	직업	N	M	SD	F	p	Post-hoc
기본	지도자	168	3.321	1.074	15.465	.000***	b,c>a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875	.875			
	학생	336	3.827	.983			
겨루기	지도자	168	3.607	1.148	7.625	.001**	c>a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875	.875			
	학생	336	3.976	.940			
품새	지도자	168	3.643	.814	12.659	.000***	c>a>b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554	.913			
	학생	336	4.024	.995			
시범	지도자	168	3.786	.676	1.586	.206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732	.842			
	학생	336	3.917	1.090			
격파	지도자	168	3.821	.603	1.259	.285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696	.829			
	학생	336	3.893	1.037			

*** $p<.001$, ** $p<.01$ a.지도자, b.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c.학생

2) 직업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 차이

직업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태권도역사, 태권도사회학, 태권도심리학, 태권도 교육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역학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LSD의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우선 태권도역사영역($p<.001$)에서는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선 태권도역사영역($p<.001$)에서는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표 7. 직업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 차이

영역	직업	N	M	SD	F	p	Post-hoc
태권도역사	지도자	168	3.250	1.025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607	.908	9.130	.000***	a<b,c
	학생	336	3.637	.955			
태권도정신·철학	지도자	168	3.179	1.107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357	1.086	.934	.393	
	학생	336	3.292	.973			
태권도사회학	지도자	168	3.179	1.170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589	.968	3.949	.020*	a<b,c
	학생	336	3.375	.951			
태권도심리학	지도자	168	3.464	1.020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857	.962	3.457	.032*	b>a
	학생	336	3.589	.955			
태권도교육학	지도자	168	3.429	.982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929	.892	5.983	.003**	b>a,c
	학생	336	3.518	.933			
태권도경영학	지도자	168	3.536	.947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857	.773	2.428	.089	
	학생	336	3.619	.970			
태권도생리학	지도자	168	3.321	1.040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3.946	.903	8.677	.000***	b>a,c
	학생	336	3.393	.996			
태권도역학	지도자	168	3.321	1.074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56	4.071	.970	11.357	.000***	b>a,c
	학생	336	3.458	1.012			

*** $p<.001$, ** $p<.01$, * $p<.05$ a.지도자, b.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 c.학생

(3.607)와 학생(3.637)이 지도자(3.250)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태권도사회학영역($p<.05$)에서도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3.589)와 학생(3.375)이 지도자(3.179)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고, 태권도심리학영역($p<.05$)의 경우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3.857)가 지도자(3.464)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교육학영역($p<.01$)의 경우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3.929)가 지도자(3.429)와 학생(3.518)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태권도생리학영역($p<.001$)의 경우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3.946)가 지도자(3.321)와 학생(3.393)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고, 마지막 태권도역학영역($p<.001$)의 경우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4.071)가 지도자(3.321)와 학생(3.458)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3) 단 정도에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 차이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표 8)과 같다. 분석결과 태권도기술 중 기본영역($p<.001$), 겨루기영역($p<.05$), 품새영역($p<.001$), 시범영역($p<.001$), 격파영역($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표 8.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 차이

영역	단 정도	N	M	SD	F	p	Post-hoc
기본	1단~3단	83	3.651	.930	12.398	.000***	b>c
	4단	262	3.893	.965			
	5단 이상	215	3.433	1.083			
겨루기	1단~3단	83	3.819	1.026	4.140	.016*	b>c
	4단	262	3.981	.895			
	5단 이상	215	3.716	1.123			
품새	1단~3단	83	3.867	1.033	13.215	.000***	a,b>c
	4단	262	4.061	.933			
	5단 이상	215	3.619	.898			
시범	1단~3단	83	3.530	1.233	7.719	.000***	b,c>a
	4단	262	3.992	.998			
	5단 이상	215	3.823	.740			
격파	1단~3단	83	3.602	1.104	5.717	.003**	b>a,c
	4단	262	3.969	.962			
	5단 이상	215	3.805	.716			

*** $p<.001$, ** $p<.01$, * $p<.05$ a,1단~3단, b,4단, c,5단 이상

났으며 이를 LSD의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우선 기본영역($p<.001$)은 4단(3.893)이 5단 이상(3.433)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겨루기영역($p<.05$)도 4단(3.981)이 5단 이상(3.716)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고 품새영역($p<.001$)의 경우 1단~3단(3.867)과 4단(4.061)이 5단 이상(3.619)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영역($p<.001$)은 4단(3.992)과 5단 이상(3.823)이 1단~3단(3.530)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격파영역의 경우 4단(3.969)이 1단~3단(3.602)과 5단 이상(3.805)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4)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 도서의 필요성 차이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표 9>과 같다. 분석결과, 태권도역사, 태권도정신·철학, 태권도사회학, 태권도심리학, 태권도교육학, 태권도경영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역학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태권도역사영역($p<.01$)의 경우 4단(3.679)이 5단 이상(3.349)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태권도정신·철학($p<.05$)은 4단(3.328)과 5단 이상(3.302)이 1단~3단(3.302)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고 태권도사회학($p<.01$)의 경우도 4단(3.469)과 5단 이상(3.312)이 1단~3단(3.312)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태권도심리학($p<.01$)의 경우 4단(3.653)과 5단 이상(3.614)이 1단~3단(3.253)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태권도교육학($p<.01$)의 경우도 4단(3.580)과 5단 이상(3.591)이 1단~3단(3.229)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경영학($p<.01$)의 경우도 4단(3.702)과 5단 이상(3.656)이 1단~3단(3.253)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태권도생리학($p<.001$)도 4단(3.515)과 5단(3.656)이 1단~3단(3.253)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태권도생리학($p<.001$)도 4단(3.515)과 5단 이상(3.526)이 1단~3단(2.892)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역학($p<.01$)의 경우도 4단(3.599)과 5단 이상(3.558)이 1단~3단(2.892)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표 9.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 차이

영역	단정도	N	M	SD	F	p	Post-hoc
태권도 역사	1단~3단	83	3.446	.966	7.041	.001**	b>c
	4단	262	3.679	.929			
	5단 이상	215	3.349	1.034			
태권도 정신·철학	1단~3단	83	2.964	.993	4.261	.015*	b,c>a
	4단	262	3.328	.962			
	5단 이상	215	3.302	1.097			
태권도 사회학	1단~3단	83	2.988	1.042	7.175	.001**	b,c>a
	4단	262	3.469	.949			
	5단 이상	215	3.312	1.085			
태권도 심리학	1단~3단	83	3.253	.881	5.562	.004**	b,c>a
	4단	262	3.653	.937			
	5단 이상	215	3.614	1.043			
태권도 교육학	1단~3단	83	3.229	.992	5.013	.007**	b,c>a
	4단	262	3.580	.857			
	5단 이상	215	3.591	1.028			
태권도 경영학	1단~3단	83	3.253	1.080	7.533	.001**	b,c>a
	4단	262	3.702	.899			
	5단 이상	215	3.656	.924			
태권도 생리학	1단~3단	83	2.892	.897	14.216	.000***	b,c>a
	4단	262	3.515	.958			
	5단 이상	215	3.526	1.063			
태권도 역학	1단~3단	83	2.892	.950	16.275	.000***	b,c>a
	4단	262	3.599	.977			
	5단 이상	215	3.558	1.092			

*** $p < .001$, ** $p < .01$, * $p < .05$ a. 1단~3단, b. 4단, c. 5단 이상

IV. 논 의

본 연구는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에서 재정의 책임성 제고와 재정자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기원 도서출판 활성화에 기여하고 태권도 지도자들과 미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태권도 전공생들을 위한 태권도교육과정 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도서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태권도기술이 태권도과학보다 높은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의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태권도란 신체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공격 및 방어에 있어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다양한 동작을 행함에 있어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무예스포츠이다(국기원, 2019). 이는 태권도가 무예이자 스포츠로써 신체를 활용하는 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태권도의 과학적인 영역보다 태권도의 기술적인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둘째, 태권도기술영역의 도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품새, 시범, 겨루기, 격파, 기본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품새와 시범의 세부영역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우선 품새의 경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뿐 아니라(신준희, 2018. 08. 12),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새 품새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로 인하여 태권도인들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범영역의 경우 필요성이 2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범영역의 출전 선수의 추이로 확인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조직위원회 자료(2015년~2018년)에 따르면 2015년 245명, 2016년 289명, 2017년 354명, 2018년 461명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시범에 대한 추이가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범영역에 대한 관심 증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태권도과학영역의 도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태권도경영학, 태권도심리학, 태권도교육학, 태권도역사, 태권도역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사회학, 태권도정신·철학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 전공자들의 경우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뒤 태권도 지도자를 희망하는 인원이 90%로 나타나(김현길, 2010. 10. 21.) 태권도 지도자 즉, 태권도장의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태권도경영서적을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태권도 도서의 필요성 교차분석 결과, 태권도기술영역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태권도과학영역의 경우 태권도 교육학, 태권도 경영학만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

도 전공생들의 경우 태권도 지도자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에서 태권도 지도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권도교육과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직업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영역에서는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와 학생이 지도자보다 높게 차이나 나타났으며 겨루기영역의 경우 학생이 지도자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고, 품새영역은 학생, 지도자,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순으로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3급 사범자격증 실기 내에 기본영역과 겨루기 및 품새 영역이 포함되어져 있어(세계태권도연수원, 2019) 학생과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가 높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직업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태권도역사와 태권도사회학에서는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와 학생이 지도자 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태권도교육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역학의 경우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가 지도자와 학생보다 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들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의 학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서 학문을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높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영역과 겨루기영역의 경우 4단이 5단 이상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품새영역의 경우 1단~3단과 4단이 5단 이상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고 시범과 격파영역에서는 4단과 5단 이상이 1단~3단보다 더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기본영역과 겨루기영역의 경우 태권도사범지도자연수 내용에 포함(세계태권도연수원, 2019)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시범과 격파영역의 경우 4단과 5단 이상이 1단~3단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1단~3단의 경우 4단과 5단 이상보다 기본기에 더 관심이 많으며 4단과 5단 이상의 경우 기본기술을 넘어선 시범기술과 격파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여덟째,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태권도역사의 경우 4단이 5단 이상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태권도 역사를 제외한 태권도정신·철학, 태권도사회학, 태권도심리학, 태권도교육학, 태권도경영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역학 모든 영역에서 4단과 5단 이상이 1단~3단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4단의 경우 사범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이론연수 내용에 태권도 역사가 포함(세계태권도연수원, 2019)되기 때문에 높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외에 다른 태권도과학 영역의 경우 4단과 5단 이상의 경우 태권도기술영역 이외에도 태권도과학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에서 재정의 책임성 제고와 재정자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기원 도서출판 활성화에 기여하고 태권도 지도자들과 미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태권도 전공생들을 위한 태권도교육과정 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도서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태권도기술이 태권도과학보다 높은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태권도기술영역의 도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품새, 시범, 겨루기, 격파, 기본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권도과학영역의 도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태권도경영학, 태권도심리학, 태권도교육학, 태권도역사, 태권도역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사회학, 태권도정신·철학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태권도 도서의 필요성 교차분석 결과 태권도기술영역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태권도과학영역의 경우 태권도 교육학, 태권도 경영학만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영역에서는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와 학생이 지도자보다 높게 차이나 나타났으며 겨루기영역의 경우 학생이 지도자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고 품새영역은 학생, 지도자,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순으로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직업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태권도역사와 태권도사회학에서는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와 학생이 지도자 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태권도교육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역학의 경우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가 지도자와 학생보다 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기술 도서의 필요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영역과 겨루기영역의 경우 4단이 5단 이상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품새영역의 경우 1단~3단과 4단이 5단 이상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고 시범과 격파영역에서는 4단과 5단 이상이 1단~3단보다 더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여덟째, 단 정도에 따른 태권도과학 도서의 필요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태권도역사의 경우 4단이 5단 이상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태권도 역사를 제외한 태권도정신·철학, 태권도사회학, 태권도심리학, 태권도교육학, 태권도경영학, 태권도생리학, 태권도역학 모든 영역에서 4단과 5단 이상이 1단~3단보다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

다. 먼저 본 연구는 국기원 연구소의 도서출판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에 관한 기초 연구로써 태권도 도서에 대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대학의 태권도 전공생과 지도자 및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에게 도서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태권도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연구된 박정호(2017)의 태권도 교육과정 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진다면 효과적인 도서출판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은 태권도전공생과 지도자 및 교·강사/연구자/기관종사자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일선의 태권도장 학부모를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태권도의 영역을 활용한 만화 또는 애니메이션 등의 출판에 대한 구매의도 등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전공생과 지도자 및 관계자 이외에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국기원(2017). 국기원 홈페이지. 국기원 소개, <http://www.kukkiwon.or.kr/front/pageView.action?cmd=/kor/introduce/introduce>
- 국기원(2019). 국기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태권도 기술, <http://www.kukkiwon.or.kr/front/pageView.action?cmd=/kor/information/taekwondoSkill>
- 경희대학교 총장기 조직위원회(2015).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경기규정 대진표**. 용인: 경희대학교.
- 경희대학교 총장기 조직위원회(2016).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경기규정 대진표**. 용인: 경희대학교.
- 경희대학교 총장기 조직위원회(2017).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경기규정 대진표**. 용인: 경희대학교.
- 경희대학교 총장기 조직위원회(2018).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경기규정 대진표**. 용인: 경희대학교.
- 김남수, 정병기(1996). 한국 경기 연맹 단체의 수익사업 확보에 관한 연구 : Licence발급을 중심으로. **경원전문대학**, 18(1), 449-463.
- 김현길(2010. 10. 21.). **태권도·무술학과 취업률, 전년대비 '50%'이상 급감**. 무카스. <https://mookas.com/news/10782>.

- 두산백과(2019). 두산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967&cid=40942&categoryId=31721>
- 박정호(2017). 태권도 교육과정 기준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세계태권도연수원(2019). 세계태권도연수원 홈페이지, 교육지원 공지사항. <http://wta.kukkiwon.or.kr/kr/notice/detail?topMenuId=91&menuId=92&searchWord=&searchType=title&id=1081&page=2>
- 신준희(2018. 08. 12). [아시안게임] 겨루기 줄고 품새추가...그래도 효자는 태권도. 연합뉴스.
- 이경명(2011). 태권도 용어정보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2879&categoryId=42879>
- 이시우(2019). 출판 시장 조사2. <http://www.bookzle.co.kr/news/19320>
- 이종천, 유호윤, 이재돈(2017). 태권도 통계·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8(1), 143-167.
- 한국출판산업진흥원(2018). 2018 출판사업 실태조사.
- 홍성익, 김유찬(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6(1), 159-184.
- 행정자치부(2016).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정).

A Study on Profit Models for the Invigoration of Publishing Activity at Kukkiwon Institute

Oh, Seung-Young (Korea Sports Contents Development Institute, Secretary General) ·

Kim, Wook-Ki (Yong-in University, University Lecture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the invigoration of publishing activity at Kukkiwon institute, the headquarter of world Taekwondo, as to contribute to its financial independence by looking into profit models for related activities at the facility. In order to meet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nalyzed the book needs of Taekwondo instructors, college athletes and researchers/teachers/facility employees, who are actual consumers of Taekwondo books. Overall, the subjects showed higher needs for Taekwondo skill books compared to Taekwondo science. For Takewondo skill field, the necessity was in the order of Poomsae, performance, sparring, breaking, and basics. For Taekwondo science field, the necessity was in the order of Taekwondo management, psychology, education, history, dynamics, physiology, sociology, and mind&philosophy. As for the results of the cross-analysis of Taekwondo book necessity, the skill field showed 'somewhat necessary' for all topics while the science field showed 'somewhat necessary' highly for the education and management topic. Also, the difference analysis between occupation for the Taekwondo skill book necessity showed that researchers/teachers/facility employees and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structors for the basic topic, the Poomsae topic showed in the order of student, instructor, and researchers/ teachers/facility employees. For the Taekwondo Science necessity difference analysis, Taekwondo history and sociology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researchers/teachers/facility employees and students compared to instructors and Taekwondo education, physiology, and dynamic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researchers/teachers/facility employees compared to instructors and students. The result of difference analysis between Dan ranks for the Taekwondo skill book necessity showed that basic and sparring topic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4 Dan than 5 Dan and above while Poosae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1 to 3 Dan and 4 Dan than 5 Dan and above. Also, the performance and breaking topic were higher for 4 Dan and 5 Dan and above compared to 1 to 3 Dan. As for Taekwondo science necessity difference analysis between Dan ranks showed that history topic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4 Dan than 5 Dan and above. Also, other than history, all other topic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4 Dan and 5 Dan and above compared to 1 to 3 Dan.

Keywords: Kukkiwon Taekwondo, Taekwondo instructor's course,
quality of Taekwondo instructor

논문투고일: 2019. 10. 31.

논문심사일: 2019. 11. 07.

심사완료일: 2019. 12. 01.